재활치료과학 제 13 권 제 1 호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13. No. 1. 2024.
https://doi.org/10.22683/tsnr.2024.13.1.049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지재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현상학적 연구 방법 혼합설계

주유미[*], 김영근[**], 이희령[***], 홍승표[****], 한대성[*****]

[*]동국대학교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인간발달・재활전공 연구초빙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학생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부교수

[*****]상지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론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지재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아울러 Python을 사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였고, 출현 빈도 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5명의 연구자가 의미 단위와 주제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인지재활의 현상에 대한 의미 단위 43개 및 구성요소 9개를 도출하였고, 이로부터 총 3개의 주제를 최종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심 주제는 인지재활의 정의, 인지재활의 문제점,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이었다. 인지재활은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는 인식이 있었다. 인지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에 관한 문제 인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치료사의 전문성, 입소문, 비용과 시간의 적정성이 있었다.

결론 :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인지재활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인 기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임상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보다 나은 인지재활 서비스로 발전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발달장애, 부모 인식, 인지치료, 인지재활, 현상학적 연구

교신저자 : 한대성(starrehab@hanmail.net)
|| 접수일: 2023.11.03 || 심사일: 2023.11.27
|| 게재승인일: 2024.01.23

Ⅰ. 서 론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은 1950년대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인지개념의 발달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Kelly, 1955). 인지재활은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통용하여 많이 사용하는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인지적 왜곡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치료 방법을 일컫는다(Beck, 2005). 이는 주로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일컬으며 재활치료에서 인지적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중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Beck, 2005; Toglia & Foster, 2021). 개인의 저하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접근법은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Clare & Woods, 2004; Strobach & Karbach, 2016; Toglia & Foster, 2021). 이 같은 인지적 중재는 작업치료사, 심리전문가 및 기타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된다(Tsantali et al., 2017).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학문적 담론을 통해 인지에 관한 치료영역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적 중재는 다양한 이론적 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다. 인지자극은 인지 도메인에 따라 특화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인지수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실지향(reality orientation) 자극을 반복하여 훈련한다(Clare, 2003; Woods et al., 2023). 주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모델로서 사용된다(Spector et al., 2001). 인지훈련은 인지처리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고, 특정 인지영역에 결핍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표준화된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Gates et al., 2011; Strobach & Karbach, 2016). 대부분 지필 과제나 전산화 과제에 기반한다(Clare & Woods, 2004). 반면, 인지재활은 중재 목표가 인지기능 향상 자체에 있기보다는 일상생활 문맥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있다(Toglia & Foster, 2021; Wilson, 1997). 인지재활에서 인지는 개인의 삶의 경험과 사회적 문맥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인지로서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 임상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작업치료에서의 인지적 중재는 독립적인 활동 수행을 지지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인지적 결핍을 최소화하는 인지재활 접근이다(Abreu & Toglia, 1987; Lee et al., 2001). 그렇기 때문에 기능 중심적 훈련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Case-Smith & Arbesman, 2008).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사고 및 처리기술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기능적 인지(functional cognition)를 훈련한다(Wolf et al., 2019).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는 수행을 관찰하고 수행의 질과 오류에 기반하여 개인의 인지기능을 평가한다(Giles et al., 2020). 주의력, 기억, 억제 및 처리와 같은 각각의 인지 단일요소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접근법과는 구별된다(Miotto et al., 2008).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적기의 인지재활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령기로 갈수록 사회성 및 학업과도 관련이 깊어진다(Ahn & Hwang, 2017; Allen et al., 2008). 코호트 연구 결과, 인지 조기중재를 받은 아동일수록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향상되어 통제 그룹에 비해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08). 국내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성취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Baek, 2020; Kang et al., 2015). 학령기 아동의 학교 내 학업, 일상생활, 사회관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인지재활이 필요하다(Baek, 2020; Kim et al., 2018).

다양한 인지 관련 치료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같이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지 중재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Kim et al., 2003; Lee & Chung, 2020). 국내 임상에서의 인지재활의 치료 실태를 서비스 대상자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 전문영역의 발전에 중요하다

(Kim & Choi, 2007). 특히, 치료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부모의 경험으로부터 드러나는 임상의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Kang et al., 2015). 현상학, 해석학적 방법,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들이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밝히는 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특정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방법론이다(Creswell, 2013). 연구자의 현상에 대한 주관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판단중지(epoche)하고, 인터뷰나 참여의 방법을 통해 개인 경험의 본질을 직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1999; Lee, 2005).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현상의 명확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1999).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기존 관련 종사자의 관점을 벗어나 치료 서비스의 수혜자 관점에서 인지재활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질적 토의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휴리스틱 보조도구로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출현 빈도 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자의 개인 관심사에 따라 편중된 청취와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들어 질적 연구 방법론과 혼합설계가 시도되고 있다(Yu et al.,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지재활에 대한 경험적 현상을 알아보고 더불어 인지재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 임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인지재활 전문성의 정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학문적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22년 7월 4일~8일 동안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 내 부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우선 모집하였다. 신청한 부모 중 초기 면담을 통해 작업치료사에 의한 인지재활을 다년간 받아봤고 인지재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부모를 연구 대상자로 선별하였다(Table 1). 대상자는 본 연구기관에서 치료받지 않아서 이해 상충 관계는 없었다. 연구의 목적 및 모든 연구 과정에 관해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부모에게 이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DUIRB-202009-04). 인터뷰는 부모상담실에서 연구자와 부모가 일대일로 진행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얻어 클로바노트(CLOVA) 앱으로 녹음하여 자동 스크립트를 작성하였고, 자동으로 작성된 스크립트와 녹음파일을 연구자가 재검토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no.	Age (yr)	Sex	Occupation	Child's diagnosis	Dura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service (yr)
Participant 1	46	Female	Housewife	ASD	3
Participant 2	43	Female	Housewife	ASD	4
Participant 3	49	Female	Teacher	Down syndrom	1
Participant 4	41	Female	Housewife	ID	2
Participant 5	45	Female	Housewife	ASD	4

ASD = autistic spectrum disorder; ID = intellectual disorder.

2. 연구 주제 및 질문

전반적인 인지재활의 경험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의 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Table 2). 인터뷰 질문 가이드라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비 질문목록을 개발하였고 위원회 연구자 5명이 모여 논의를 통해 보완 및 최종 수정을 하였다(Kang et al., 2015; Kim & Choi, 2007). 인터뷰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하되 대상자가 인지재활에 대해 하고 싶은 주제가 발견되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인터뷰는 동일한 1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작업치료사이자 대학교수로서 인지재활과 현상학적 연구에 전문성이 있고, 인터뷰 대상 아동을 직접 치료하지 않아 직접적인 이해 상충 관계가 없었다.

3. 자료 분석

1) 워드 클라우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병행하여 인터뷰 내용 중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중재를 칭하는 용어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회 논의 시 놓친 의미단위가 없는지 검토하는 휴리스틱 보조도구로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참고하였다(Han et al., 2022). Word Cloud 분석은 Python으로 하였고, numpy, pandas, matplotlib.pyplot, wordclou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불용어 처리 단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3).

2) 현상학적 분석

면담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Giorgi (200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5명의 연구자가 면담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읽고 대화의 문맥과 화자의 의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5명의 연구자 개인별로 면담 스크립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언급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하였다. 중복을 제외하고 총 43개의 세부적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학술적 담론적 가치가 있는 의미 단위로 현상을 재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명의 연구자가 함께 모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와 동시에 의미 단위를 검토하여 토론하고 최종 의미 단위와 구성요소 및 중심 주제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을 위한 노력

분석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able 2. Key Theme of Interview

Overall question	Questions for interview
"How do parents think about cognitive rehabilitation ?"	Q1. Please tell us your opinion freely about your experience for cognitive rehabilitation.
	Q2. What purpose/expectations did you have when you started receiving cognitive rehabilitation?
	Q3. How does cognitive rehabilitation help children?
	Q4. What aspect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do not help children?
	Q5. What do you consider important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ion?

Table 3. The List of Stopwords

Stopwords
'b', '〉', '〈/', '이', '을', '.', '를', '가', '는', '것', '들', '도', '좀', '거', '게', '이런', '네', '수', '"', '에', '은', '적', '그런', '으로', '안', '이제', '같아요', '할', '너무', '그냥', '제', '로', '해서', '하는', '있는', '진짜', '만', '근데', '일단', '개', '한', '못', '걸', '다', '데', '예요', '그', '더', '뭔가', '그래서', '되고', '라고', '이라고', '해요', '처럼', '뭐', '식', '까지', '예', '그리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이나', '그게', '한테', '있게', '에서는', '않고', '했던', '알', '쪽', '랑', '그러니까', '에는', '진짜', '이제', '그냥', '생각'

Guba와 Lincoln (1981)이 제안한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Lee & Kim, 2014; Shin, 1996).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유지하기 위해 면담한 아동 부모의 경험에서 인식된 표현 그대로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인지재활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인 고유의 경험이 다른 대상자들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방법, 인터뷰 과정, 자료 분석 과정의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시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장을 판단중지하고 모든 편견으로부터 중립된 자세로 면담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지 관련 중재를 언급할 때 '인지치료' 단어의 사용 빈도는 72회였고, '인지재활' 또는 '인지중재'와 같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Table 4). 인터뷰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인지, 치료, 선생님, 때, 아이, 지금, 시간, 돈'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집중, 발달, 개념, 일상생활, 엄마, 기능, 센터, 공부, 능력, 말' 등이 빈번히 언급되었다(Figure 1).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층 토의에서 인터뷰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의미 단위 43개, 구성요소 9개, 및 중심 주제 3개가 도출되었다(Table 5).

2.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에 대한 정의

1) 인지재활의 서비스 정의를 색, 숫자, 도형, 한글, 돈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학습을 보조해주는 치료로서 인지재활을 생각하고 있었다.

Figure 1. Interview Script Word-Cloud

Table 4. Word Frequency List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인지치료	72	집중	16	제일	13
인지	61	발달	16	센터	13
치료	56	일반	16	공부	12
선생님	56	개념	15	능력	12
때	34	일상생활	15	말	12
아이	27	엄마	15	애	11
지금	26	자기	14	사람	11
시간	24	계속	14	기본	11
조금	21	정도	13	처음	10
돈	20	기능	13	시작	10

Table 5. Meaning Units on Parents' Perception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Meaning units	Components	Main themes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the learning of concepts (the concepts of color, number, figure, Korean, money)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intended to assist in academic competency	Assistance to learning and studying	Defini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intended to perform daily activities well • Cognitive rehabilitation helps a child become independent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mprovement of daily living function	
• Concentrat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Awareness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Memory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Attent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Following instructions and understanding rules are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Self-express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Social skills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Language growth is promot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Improvement of cognitive functions	
• Treatments that focus on elements of function does not work • Treatments by rote cause a child's aversion to treatment • It is useless without functional improvement in daily life • Simple repetitive treatment is rejected by the child • Computerized cognitive therapy makes a child addicted to digital devices	Treatment method	Problem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 There is a large variation in the expertise of therapists • There are many therapist who provide with just time-killing treatments • The fresh therapist has lower understanding of the child	Therapist's expertise	
• The large number of treatments is a financial burden • Cognitive treatment at the hospital is expensive because it is not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 The cost of treatment per session at the center is too high • The treatment is not cost-effective	Cost of treatment	
• A therapist with a lot of clinical experiences • A therapist who briefs well about a session • A therapist with a lot of expert knowledge • A therapist of good personality • Therapists who crea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child and parents	Therapist's expertise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ion
• A place with good reputation among mothers	Reputation from others	
• Public institutions (welfare community centers, etc.) that are cheaper than for-profit center • A place where the wait is not long • Easy adjustment of treatment schedule	Cost and time efficiency	

인지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하면 언어도 발달하고 수 개념도 생기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죠. (대상자 1)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는 마냥 어리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구요. 한글도 되든 안 되든 시도해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인지치료 하고 있어요. 00(아동)가 수 개념 같은 거가 안 됐는데 인지치료를 하고 사탕의 개수 같은 걸 알아요. 확실히 수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대상자 2)

인지치료에서 색깔 구분하는 것이나 도형 같은 거 배웠구요. 도형 그리는 것도 하고, 그 다음 한글 하고 있어요. 인지치료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게 공부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서 학습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깐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거고. 학교에서의 학습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4)

2) 아울러, 이전에 인지재활을 받아본 경험에서 인지치료는 일상생활수행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인터뷰 보고에 따르면 중재에서 신발 신기, 촛불 끄기, 양치하기 등과 같은 작업적 목표가 있는 기능적 인지재활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부모님들은 인지재활을 통해 아동의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은 다 인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활동을 잘하게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스스로 자지가 신고 벗기를 잘 못했는데 인지치료를 받고 이제는 좀 하죠. 아이가 인지치료를 받을 때 신발 신는 시늉을 하더라구요. (대상자 3)

인지치료에서 일상적으로 양치에서 물 뱉는 거 가르쳐 주시고, 촛불 끄고, 수저질 이런 거 했던 거 같아요. (대상자 4)

인지치료를 다닌 이유는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아지고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사람처럼 조금 비슷하게 자립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에요. (대상자 1)

3) 마지막으로, 인지재활에서 다양한 개별 인지적 요소를 훈련하는 중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재활에서 고려되는 인지적 요소로는 주의집중력, 사물인식, 기억력, 공동주의력, 지시 따르기 및 규칙 이해하기, 자기표현, 사회성, 언어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인지재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도 일부 보고되었다. 치료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고,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다.

사물이든 뭐든 간에 뭔가 스스로 알아보고 아는 인지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했거든요. 00(아동)가 주의집중력, 기억력 이런 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구요. 그런데 인지치료 받으면서 인지기능이 조금 향상되기도 하고 말귀도 좀 더 알아듣고, 자기표현도 하고 그러길 원했는데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어요. (대상자 3)

우리 애들은 공동주의력이 특히 안 되고 집중하면 풀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그냥 딴 짓을 해서 안 하는데, 그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클수록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인지치료를 하기에는 참 좋은 거 같은데 나이가 들면 좀 효과가 좀 희석되는 거 같아요. (대상자 5)

3.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의 문제점

1) 현재 국내의 인지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이 언급되었다. 치료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인지요소에 단편적으로 포커스하는 치료, 주입식 치료, 일상생활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치료, 단순 반복 치료, 전산화 인지치료가 보고되었다. 특히 전산화 인지재활의 경우 아동의 호응도는 좋다고 보고하는 반면에 부모의 선호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아래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진짜 단편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인지는 사실 인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상자 1)

전산화 인지치료가 약간 부정적인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집에서도 핸드폰을 많이 보거든요. 아이는 전산화 인지치료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인지치료할 때 뭔가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4)

자폐인 경우에는 치료를 단순 반복해서 하면 아이가 수학 수식처럼 학습해요. 그러면 확장이 안 되요. 말에는 특히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공식처럼 가르쳐 버리면, 다른 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자폐아동에겐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 (대상자 5)

2) 그 외에도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은 치료사 개인에 따라 전문성의 편차가 커서 협력적인 치료 관계로 이끌어 가는 좋은 치료사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 때우기식 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있고, 초년차 치료사의 경우 아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언급이 있었다.

치료사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 같아요. 치료사별로 아이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부모님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끌고 나가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대상자 1)

치료사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을 해서, 어떤 치료사는 시간 때우기로 해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절박하고 갈 데 없으니깐 그런 데라도 찾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대상자 1)

치료사 선생님들에 따라 편차가 워낙 심해요. 그냥 자료 같은 거 보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폐아동에게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대상자 5)

3) 치료비용은 대개 회당 치료비용이 비싸고 치료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싼 치료비에 대한 문제점은 병원 및 지역사회 사설 센터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의 문제로 인해 복지관과 같은 공공 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아이가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좀 부담되요. 그런데 이제 쭉 봐오니깐 일반 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돈 장사에요. 치료비가 비싼 데도 엄마가 아이를 좀 안 본다 라든지 무관심하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제대로 치료 안 해요. 그냥 방치하거나, 아이랑 그냥 놀거나, 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 라던지. 이런 게 심해요. (대상자 2)

치료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그거에 비해 치료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거 같다고 다들 하셔서 저는 사설 센터는 별로 생각 안해봤었어요. (대상자 3)

아직까지는 병원에서는 인지치료가 비급여에요. 그래서 비싸죠. 그래도 사설 센터보다는 싸요. 00동은 인지치료가 50분에 1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길 건너에 있는 센터는 5만 원이에요. 사설 센터가 병원보다 비싸죠. (대상자 4)

4.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인지재활 제공 기관 선택 시 부모님들은 치료사의 전문성, 평판, 적절한 비용과 스케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사로서의 전문성으로 풍부한 임상 경력과 전문지식, 치료에 대한 브리핑, 인성, 협력적인 관계 형성, 공공기관 소속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치료기관 선택 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엄마들 사이의 입소문을 신뢰하였다. 또한 치료 비용의 적절성을 고려하였고, 대기가 길지 않고 아동의 스케줄에 잘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바로 그냥 들어와요.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치료를 한다는 게. 임상 경력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대상자 2)

선생님의 전문성이 중요해요. 저는 일단 평가를 받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수업하실지 들어보고 치료 방향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결정해요. (대상자 4)

저는 치료사 선생님의 인성을 볼 거 같아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 그런 거는 다 비슷하실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의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 3)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충분히 알려주시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나 함께 집에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숙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았어요. 부모님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치료를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대상자 1)

엄마들의 입소문이 좀 믿을만한 게 친해진 엄마들이 여기가 괜찮다 하는 거는 실제로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로 다른 엄마들이 여기가 좋다고 하면 다닐 여력이 되면 하는 편이에요. (대상자 5)

복지관은 비용도 저렴하고 거의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거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경험도 많으신 거 같고요. (대상자 2)

사설 시장은 다른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가격도 너무 비싼 거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도 않구요. 그래서 사설 센터보다는 복지관을 다니고 있어요. (대상자 3)

사설 시장은 대기가 긴 곳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해서 같이 못해 주니깐 스케줄이 잘 맞는 곳을 선호해요. (대상자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부모들이 인지재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경험을 청취하고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현상학적 연구와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론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인지 관련 중재는 '인지재활', '인지치료', '인지자극', '인지훈련'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었지만, 5명의 인터뷰 참여 부모님 모두 '인지치료'라는 단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인지관련 중재를 칭하는 다른 용어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지치료와 인지재활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불명료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술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인지치료')가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지치료는 정신병리학적 문제로 인한 인지적 왜곡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며, 발달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내 기능적 향상을 위한 인지적 결핍을 치료

하는 것은 '인지재활' 또는 '인지훈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Beck, 2005; Gates et al., 2011; Wilson, 19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치료 경험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지중재는 실제로 인지훈련과 인지재활의 개념으로서 시행되고 있었다. 즉, 인지기능의 향상을 위한 인지요소의 반복적 훈련과 일상생활활동 훈련을 통한 기능적 인지기능 향상을 치료적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에서는 다양한 인지중재 모델을 활용한다. 인지장애 모델, 피아제 인지모델,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 인지수정 모델, 인지정보처리 모델, 신경 기능적 모델, 재훈련 모델, 인간작업 모델 등을 활용한다(Abreu & Toglia, 1987; Katz, 1994; Toglia, 2011). 아동의 기능적 수준이나 중재의 목표에 따라 적합한 인지 중재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인지재활은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나뉜다(Schell et al., 2013; Vas et al., 2021). 하향식 접근법은 실제 활동에 중심을 두는 중재를 제공한다. 실제 활동을 훈련함으로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신경인지 기능의 향상을 촉진한다(Vas et al., 2021). 상향식 접근법보다는 문제해결력, 유연성, 의사결정, 자기 조절력과 같은 기술을 훈련시키면서 일상생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일반화될 수 있는 전략을 훈련한다(Cicerone et al., 2011; Wolf et al., 2019). 인지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여 행동을 적응시키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이다(Katz, 1994). 그러므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아동이 일상생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지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상에서 일부 치료에서는 인지기능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아동이 독립적으로 신발 신기 또는 양치하기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향식 접근법은 인지의 요소들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회복적 인지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개별인지 요소들을 구분하여 훈련하고, 또한 반복적 연습을 통해 기능을 강화한다(Vas et al., 2021).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인지요소에 중점을 두는 상향식 접근법의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때 집중력, 사물 인식, 기억력, 공동주의력, 지시 따르기 및 규칙 이해, 자기표현, 사회성,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요소가 치료 목표로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법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단편적인 인지기능에 초점을 두고 반복 훈련하는 치료는 일상생활의 기능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이에게 치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거나 거부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향식 접근법으로서 전산화 인지재활이 활용되고 있었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및 뇌신경 장애 아동의 시지각 및 일상생활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 Lee, 2013; Park, 2021). 전산화 인지재활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계적 치료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중독되게 하는 것 같다는 부모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즉,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반복훈련에 대한 부모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령전기에 비해 치료받는 비율이 감소한다(Lee & Hwang, 1996). 그 이유로는 아동이 등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치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인터뷰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치료기관 선택 시 치료 일정이 잘 맞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기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한글 또는 수 개념 등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지재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 부모는 인지재활을 학습을 위한 보조 치료로 생각하고 있었고, 학습적인 목적으로 색깔, 수, 도형, 한글, 돈에 관한 개념을 훈련하는 치료라고 인식하였다. 학령기 아동이 치료와 공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연계 치료지원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Pyo, 2012). 아울러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인지재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상위 10위 안에 자주 언급된 단어 중에 '때',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

는 인지재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 아동의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시간적 경계선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의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부모는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발달장애 아동은 어렸을 적부터 인지재활을 시작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료받지 않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 아동은 또래에 비해 발달 지연을 보여 평가와 진단을 받게 되면서 대개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Hwang, 2017; Lee & Hwang, 1996). 실제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는 만 0~9세 나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 10세 이후에는 치료받는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Lee & Hwang, 1996). 만 5~12세 학령전기에서 학령기 시기의 아동이 인지재활을 받는 빈도가 제일 높다(Ahn & Hwang, 2017).

치료사의 전문성은 현재 인지재활 시장의 문제점이자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인지재활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관에 따른 치료사의 편차가 크고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사의 경우 부모의 치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k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은 다른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보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다른 치료영역보다도 부모가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Baek, 2020). 본 연구에서 드러난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모 인식이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재활을 제공하는 작업치료사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의 개선이 여전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치료의 전문지식이 많고, 치료에 대한 브리핑을 잘해 주고, 아이 및 부모와 협력적인 치료관계(rapport)를 만드는 치료사를 선호하였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 특성, 발달 수준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부모 상담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eon et al., 2016). 또한 상담 내용으로 치료과정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et al., 2016). 하지만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사는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정도로는 임상에서 실제 사례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부모 상담 시 긴장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 Lee, 2022).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사에 대한 부정적 부모 인식이 이 때문일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작업치료는 세부 전문영역이 다양하므로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데, 인지재활 영역에서 임상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신입 치료사에 대한 슈퍼비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호주의 치료사 직무표준 사례를 살펴보면 신입 치료사(entry level)를 대상으로 임상 치료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Fone, 2006). 이처럼 인지재활 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상 슈퍼비전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Gaitskell & Morley, 2008).

또한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였는데 수익성만 너무 강조하는 센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반면 부모들은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치료사를 더욱 신뢰하고 치료비용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Hwang, 1996). 발달장애 아동 부모는 치료비용이 비싸고 치료비용에 비해 체감하는 치료 효과가 작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의 일상생활 수행에서 부모가 치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능적 인지 접근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서울 지역에서의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인지재활 임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서울 지역 외의 지방에서의 인지재활의 현황과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지재활이 아동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치료영역으로서의 부모의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습이라는 생애 주기상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치료지원으로서의 인지재활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인지재활 서비스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써 어떤 교육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인지재활 시장의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인지재활 치료는 아동의 학습 보조, 일상생활기능 향상,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에 대한 임상에서 체감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앞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최적의 치료방식에 관한 연구와 특히 신입 치료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졸업 후 직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이 더욱 편리하고 적절한 비용의 인지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 영역의 전문성 확립과 치료사의 역량 증진을 위한 향후 후속적인 실천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Abreu, B. C., & Toglia, J. P. (1987). Cognitive rehabilitation: A model for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7), 439-448. https://doi.org/10.5014/ajot.41.7.439

Ahn, S., & Hwang, S. (2017). Cognitive rehabilitation with neurodevelopmental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NeuroRehabilitation*, *41*(4), 707-719. https://doi.org/10.3233/NRE-172146

Allen, R. A., Robins, D. L., & Decker, S. L. (2008). Autism spectrum disorders: Neurobiology and current assessment practic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10), 905-917. https://doi.org/10.1002/pits.20341

Baek, S. S. (2020).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parent's need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garding health care, rehabilitation and sepcial education service syste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9*(4), 179-197. https://doi.org/10.23944/Jsers.2020.12.59.4.8

Beck, A. T. (2005). The current state of cognitive therapy: A 40-year retrospectiv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9), 953-959. https://doi.org/10.1001/archpsyc.62.9.953

Case-Smith, J., & Arbesman, M. (2008). Evidence-based review of interventions for autism used in or of relevance to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4), 416-429. https://doi.org/10.5014/ajot.62.4.416

Cicerone, K. D., Langenbahn, D. M., Braden, C., Malec, J. F., Kalmar, K., Fraas, M., Felicetti, T., Laatsch, L., Harley, J. P., Bergquist, T., Azulay, J., Cantor, J., & Ashman, T. (2011). Evidence-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Updated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2003 through 2008.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2*(4), 519-530. https://doi.org/10.1016/j.apmr.2010.11.015

Clare, L. (2003).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ementia.* In B. A. Wilson (Ed.),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eory and practice* (pp. 197-216).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Clare, L., & Woods, R. T. (2004). Cognitive training and cognitiv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early-stage Alzheimer's disease: A review.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4*(4), 385-401. https://doi.org/10.1080/09602010443000074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Fone, S. (2006). Effective supervision for occupational ther apis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formation package.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3*(4), 277-283. https://doi.org/10.1111/j.1440-1630.2006.00581.x

Gaitskell, S., & Morley, M. (2008). Supervision in occupational therapy: How are we doing?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3), 119-121. https://doi.org/10.1177/030802260807100310

Gates, N. J., Sachdev, P. S., Fiatarone Singh, M. A., & Valenzuela, M. (2011). Cognitive and memory training in adults at risk of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BMC Geriatrics*, *11*, 55. https://doi.org/10.1186/1471-2318-11-55

Giles, G. M., Edwards, D. F., Baum, C., Furniss, J., Skidmore, E., Wolf, T., & Leland, N. E. (2020). Making functional cognition a professional priorit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1), 7401090010p1-7401090010p6. https://doi.org/10.5014/ajot.2020.741002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1-18. https://doi.org/10.1163/156916202320900392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Han, J., Li, X., & Hwang, H. (2022). A study on the consumer boycott participation experience: Using text mining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2), 88-106. https://doi.org/10.5392/JKCA.2022.22.02.088

Hong, H. T., & Lee, H. R. (2022). Sensory integration clinical adaptation of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at a child private clinic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 39-54. https://doi.org/10.18064/JKASI.2022.20.1.39

Jeon, M. R., Yoo, E. Y., Jung, M. Y., & Lee, J. Y. (2016).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and demand of consultation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area of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4*(2), 47-58. https://doi.org/10.14519/jksot.2016.24.2.04

Kang, K. H., Son, H. J., & Jee, A. Y. (2015). A stud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therapeutic support service for person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Explorations into Future Education*, *36*(2), 1-28.

Katz, N. (1994). Cognitive rehabilitation: Models for intervention and research on cognition in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1), 49-63. https://doi.org/10.1002/oti.6150010107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W. W. Norton.

Kim, J. Y., & Choi, S. G. (2007). Actual condition of language therapy service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speech disorder.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6*(3), 93-112. https://doi.org/10.15724/jslhd.2007.16.3.007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Lee, M. W., Kim, Y. H., Yoo, I. Y., & Lee, H. Y.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https://doi.org/10.4040/jkan.1999.29.6.1208

Kim, Y. H., Ko, M. H., Seo, J. H., Park, S. H., Kim, K. S., Jang, E. H., Park, S. W., Park, J. H., & Jo, Y. J. (2003). Effect of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for attention training in brain injur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Rehabilitation Medicine*, *27*(6), 830-839.

Kim, Y. G., & Lee, M. J. (2013). The effect on Computer-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CoTras-C) for the cognitive 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in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3), 391-414.

Kim, Y. H., Park, J. M., Kim, J. H., Lee, J. O., & Shin, Y. I. (2018).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gnition that physical disability children's parents have about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2), 175-193. https://doi.org/10.23944/Jsers.2018.06.57.2.9

Lee, N. I. (2005).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henomenology and Modern Philosophy*, *24*, 91-121.

Lee, H. J., & Chung, H. S. (2020). The effects of the learning tree cognitive model program on supporting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Neurocognitive Rehabilitation*, *12*(1), 37-49. https://doi.org/10.29144/KSCTE.2020.12.1.37

Lee, H., & Hwang, S. T. (1996). Clinical stud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outpatients.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7*(1), 14-22.

Lee, N. H., & Kim, K. M.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2*(1), 41-52. https://doi.org/10.14519/jksot.2014.22.1.04

Lee, S. S., Powell, N. J., & Esdaile, S. (2001). A functional model of cognitive rehabilit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1), 41-50. https://doi.org/10.1177/000841740106800105

Miotto, E. C., Serrao, V. T., Guerra, G. B., de Lúcia, M. C. S., & Scaff, M. (2008). Cognitive rehabilitation of neuropsychological deficits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Dementia & Neuropsychologia*, *2*(2), 139-145. https://doi.org/10.1590/S1980-57642009DN20200011

Park, S. W. (2021).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CoTras-C)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9*(3), 9-18. https://doi.org/10.15268/KSIM.2021.9.3.09

Pyo, Y. H. (2012).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therapeutic support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3), 251-276. https://doi.org/10.20971/kcpmd.2012.55.3.251

Schell, B. A. B., Gillen, G., Scaffa, M. E., & Cohn, E. S. (2013). *Willard and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12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Shin, K. R. (1996). Criteria for critique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2), 497-506. https://doi.org/10.4040/jnas.1996.26.2.497

Spector, A., Orrell, M., Davies, S., & Woods, B. (2001). Can reality orientation be rehabilitated? Development and piloting of an evidence-based programme of cognition-based therapies for people with dementia.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1*(3-4), 377-397. https://doi.org/10.1080/09602010143000068

Strobach, T., & Karbach, J. (2016). *Cognitive training: An overview of features and application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Springer Nature. https://doi.org/10.1007/978-3-319-42662-4

Toglia, J. P. (2011). *The dynamic interactional model of cognition in cognitive rehabilitation.* In N. Katz (Ed.), *Cognition, occupation, and participation across the life span: Neuroscience, neurorehabilitation, and models of intervention in occupational therapy* (pp. 161-201).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Toglia, J., & Foster, E. R. (2021). *The multicontext approach to cognitive rehabilitation: A metacognitive strategy intervention to optimize functional cognition*. Gatekeeper Press.

Tsantali, E., Economidis, D., & Rigopoulou, S. (2017). Testing the benefits of cognitive training vs. cognitive stimulation in mild Alzheimer's diseas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ain Impairment*, *18*(2), 188-196. https://doi.org/10.1017/BrImp.2017.6

Vas, A. K., Luedtke, A., Ortiz, E., & Neville, M. (2021). Bottom-up and top-down cognitive rehabilitation following mild traumatic brain injury - Occupational therapists' perspective: An online survey study. *The In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3*(2), 56. https://doi.org/10.4103/ijoth.ijoth_8_21

Wolf, T. J., Edwards, D. F., & Giles, G. M. (2019). *Functional cognition and occupational therapy: A practical approach to treating individuals with cognitive loss.* AOTA Press.

Woods, B., Rai, H. K., Elliott, E., Aguirre, E., Orrell, M., & Spector, A. (2023). Cognitive stimulation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ing in people with dementia.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 CD005562.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5562.pub3

Wilson, B. A. (1997). Cognitive rehabilitation: How it is and how it might b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3*(5), 487-496. https://doi.org/10.1017/S1355617797004876

Yu, C. H., Jannasch-Pennell, A., & DiGangi, S. (2011). Compatibility between text mining and qualitative research in the perspectives of grounded theory, content analysis, and reliability. *The Qualitative Report*, *16*(3), 730-744. https://doi.org/10.46743/2160-3715/2011.1085

Abstract

Parents' Perception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ixed-Method Approach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nd Word Cloud Analysis

Ju, Yu-Mi[*], Ph.D., O.T., Kim, Young-Geun[**], Ph.D., O.T.,
Lee, Hee-Ryoung[***], M.S., O.T., Hong, Seung-Pyo[****], Ph.D., O.T.,
Han, Dae-Sung[*****], Ph.D., O.T.

[*]Major in Human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rvice Scienc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nam Health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Sangj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perspectives on cognitive rehabilitation using a combinati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nd word cloud analysis.

Methods :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d clou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ython, and five researchers analyzed the meaning units and themes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Words with high frequency were considered as a heuristic tool.

Results : A total of 43 meaning units and nine component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were derived, and three themes were finalized. The main themes encompassed the defini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challenges associated with cognitive rehabilit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e. Cognitive rehabilitation emerged as a treatment focused on improving learning, daily functioning, and cognitive abilitie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rceived issues with cognitive rehabilitation pertained to treatment methods, therapist expertise, and associated costs. In addition, parent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rapist expertise, humane personality, and affordability of cost and schedule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e.

Conclusion : Parents expressed expectations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heir children's daily functioning through cognitive rehabilitation. However, challenges were identified in clinical practices. Going forward, we expect that cognitive rehabilitation will evolve into a better therapeutic support service addressing the concerns raised by parents.

Keywords : Cognitive rehabilitation, Cognitive therapy, Developmental disability, Parental perception, Phenomenological study